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2024. 5.

기 획 조 정 실
(재 정 담 당 관)

2024년 제3차(5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회 의 명 : 2024년 제3차(5월) 투자심사위원회 본위원회
- 일 시 : 2024. 5. 9.(목) 13:30
- 장 소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10명(내부위원 3, 외부위원 7)
 - 내 부(3)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 부(7) : 박준영, 양연경, 유소미, 윤민석, 이혜미, 조현진, 황혜신 위원
- 안 건 : (심사)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등 13건
(지방재정영향평가) 2024 서울콘(SEOULCon)
(보고) 최근 3년간 투자심사 실시사업 사후평가 결과
- 심의결과 : 적정 4건, 조건부 추진 3건, 조건부 추진(2단계) 3건, 재검토 3건, 부적정 1건

【13시 30분, 개회】

1.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위원장

- 사업을 사전에 검토한 전반적인 의견을 봤을 때 취지는 서울시민들의 건강이나 여가 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 이걸 좀 포괄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장애, 비장애, 소위 말하는 배리어프리 개념에서도 경

증 장애인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로 준비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올해 계획은 수립되었을 것 같고, 차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여러 시민들을 더 아우러서 이 사업을 더 의미 있게 이끌어 나가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가 1회 첫 사업이고 해서 일단 규모도 사업비도 2억 5천, 이렇게 좀 적은 부분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시장님께서도 워낙 관심 있으신 사업이고, 또 이게 우리 서울시민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세계인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큰 축제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인도 포함하고, 또 장애인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음 연도에는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네, 먼저 하시죠.

○ ○○○ 위원

- 관련해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진다는지 주차장 같은 걸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한강에서 수영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돌발변수도 있을 것 같고, 수질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먼저 한번 수영을 해보시고 코스의 안전성을 검증한 것인지, 두 번째로 궁금하고.
세 번째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걸 모르고 나왔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사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홍보는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뚝섬한강공원에 자체적으로 한 66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고요. 그런데 아마 그걸로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대형마트라든가, 또 인근에 도서관이 있

어요. 도서관이 있는데 그쪽에도 한 300면 가까이 되는 주차장이 있고. 저희가 아무튼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에 주차장을 저희가 안내를 할 예정이고. 그런데 주차장 안내보다는 사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지하철역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뚝섬한강공원이 7호선 자양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뚝섬한강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은 좋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중보 아래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수질에 대해서 평가등급이 있는데 수중보 아래의 수질이 1등급,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수중보 아래에는 지금 자발적으로 시민들께서도 수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그쪽에서 처음 대회를 개최하는 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철인3종협회에서 아쿠아슬론 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요. 그런 경험이 있고. 특히 또 이번 행사 할 때는 철인3종협회에서 한강 1km 도하는 그 전반에 대해서 전담을 해서 전문가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접수를 시작했는데 여러 차례 보도자료 제공한 것도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리플릿 이라든가 포스터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시에서 운영 중인 SNS 매체를 통해서 저희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 질문하시죠.

○ ○○○ 위원

- 우선 첫 번째는 의료진 부스와 관련된 것도 한 개 동으로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다양한 구역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의료진 부스와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드론라이트쇼를 지난 주말에 다녀와 봤는데 주차장을 아예 통제시켜서 진입이 불가능한 것들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참을 그 안에서 정체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그 인원이 모임에도 그렇게 많은 혼란과 혼선이 있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1만 명의 참가자가 있다는 것은 뚝섬에 있는 주차장으로는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의 피해들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근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일부 어떤 양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사업부서

- 의료진 관련해서는 저희가 메인무대 쪽에 종합상황실에 의사분하고 간호사 이런 기본적인 인력을 배치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외에도 상급차 코스 달리기, 그다음에 자전거, 수영 각 코스마다 기본적으로 한 대씩 구급차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없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1km 도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험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행요원을 1km 구간에 약 한 120명 정도 배치할 예정이고요. 120명 정도 배치를 하게 되면 한 8m당 한 분씩 지켜보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저희가 대비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론라이트 최근에 인기가 많아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저희가 개최하기 전에 이렇게 사전안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워낙 한강공원 쪽에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난이라든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해서 되도록이면 차량 이용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아서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 평가는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 고맙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실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걱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아마 이 안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평가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 의견도 있고, 아마 또 다른 위원님들이 또 미리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건부 추진 적정으로 의견이 제시가 됐었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이의 제기해 주시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관람이 10만 명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1만 명을 대상으로 야간 경호인력이나 아니면 의료진들을 꾸렸다고 하면 관람객 포함해서 10만 명이 되었을 때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 ○○○ 위원

- 이게 동시에 10만 명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이틀 동안에 시간대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무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 2~3시간 동안 10만 명이 다 모인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틀 하는 것이고, 많은 시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 위원장

- 그러면 작년 경험으로는 위원님들 생각이 있어서 거수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우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정보다는 걱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로 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수로 손을 들어주시면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검토가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위원님 계시나요?

○ ○○○ 위원

- 안전대책은 재검토가 필요한 게,

○ ○○○ 위원

- 안전대책은 일반적인 안전대책이면 이게 적정하면서 우리가 안전대책을,

○ ○○○ 위원

- 그런데 협조기관에 경찰이 없잖아요. 그건 문제예요.

○ ○○○ 위원

- 경찰은 당연히 있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없어요.

○ ○○○ 위원

- 이 의뢰서상에요?

○ ○○○ 위원

- 네, 의뢰서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관의 임무 이런 걸 역할 분담을 해서 경찰을 아예 빼고 시청 조직만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 ○○○ 위원

- 그러면 사실 그게 아까 질문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업무를 들여다봤는데 경찰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통제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모든 행사가 한강이나 도로나 이런 데에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다 경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의뢰서상에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유관기관 여기 있네요. 의뢰서에 보면 1페이지 추진 내용에 유관기관 경찰, 소방 업무협약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 위원장

- 가로로 길게 생긴 자료 내에서 지금 보니까 추진일정 내에서 유관기관에서 경찰, 소방 등 업무협약이 있어서 이걸로 같음이 되면 걱정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경찰과 협의를 안 하고

간다라는 건 사실 생각도 못하고요, 당연한 사안인데 아마 보시는 자료에는 그 부분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재검토는 없으실까요?
재검토 없으시면 조건부 추진 의견 손 들어주십시오. 일단 저는 조건부 추진입니다.
조건부 추진 세 분 계시고,

○ ○○○ 위원

- 저까지 네 분이요.

○ 위원장

-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조건부 추진 거수해 주시면,

○ ○○○ 위원

- 최종한테 조건부라고 하면 어떤 조건인지.

○ 간사

- 우선 하시고 이따가 말씀하셔도 되고요.

○ 위원장

- 네, 그럼 일단 5분이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일단 적정으로 보면 될까요?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공교롭게 10분이시죠? 원래 과반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조건 하셔도 됩니다. 이게 조건이 무리하게 만약에 규모를 더 줄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라든가 이것은 재검토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데다가 더 신경 써달라는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으니까요.

○ 위원장

- 여기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지금 기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적정, 조건부, 재검토 중에서 하나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 ○○○ 위원

- 조건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간사

- 조건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손 드셨으니까 조건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 위원장

-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건부 추진 의견으로 일단 취합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질의·응답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범위는 아까도 경찰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주로 구체적 질문이 주차장 교통 통제라든지, 그다음에 인파가 한 번에 몰릴 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추가가 되면 이 사업은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부를 하나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수질에 관련된 부분도 질문 나왔습니다. 물론 기존에 유사한 스포츠 사업들이 있었고, 거기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됐던 그런 긍정적 사례들을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이러한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 크게 무리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안건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2. 리듬앤라이트 서울 빛축제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팝뮤직 공연은 며칠 정도를 여기에서 생각하는 거죠?

○ 사업부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입니다.
지금 한 6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31일 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예산에서 행사 지원인력에서는 단기인력이 30명이 투입된다고 하고 간략하게 산출이 나왔는데 단기인력 내에서도 일반 관리인력하고 안전운영 관리인력이 분명히 세분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원 배치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지금 개괄적으로 30명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30명이 그냥 다 일반관리에만 들어가면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 사업부서

- 아마 저희가 안전관리 심의를 받을 때 안전관리 요원들이 어느 정도 적정함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에서 진행할 때 배분해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한강 빛섬축제를 진행했을 때 안전관리요원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럼 더 많다고 하는 건 정량적으로 예를 들어서 30명 기준이면 20명, 10명인지, 아니면 18명, 12명 이렇게,

○ 사업부서

- 제가 봤을 때는 30명보다 훨씬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말 미니멈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빛섬축제 할 때는

안전관리요원만 한 150명 정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주십시오.

○ ○○○ 위원

- 우선 첫 번째는 미디어 파사드라는 주컨셉을 어떤 걸로 가져가실지. 이게 지금 매년 하시겠다고 다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 위원

- 그래서 어떤 걸로 선정을 하실지가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동이나 이 근처는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내국인의 의견만으로, 이 설문조사만으로 과연 그것을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 그리고요.

그리고 서울콘이랑 시기가 겹치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지, 아니면 단점이 될지도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시기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실질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외국인한테 설문조사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국내로 한정해서 했고요, 그것을 조금 저희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콘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겨울페스타라는 걸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했거든요. 그때도 서울스케이트장에서 했습니다. 서울스케이트장도 관광재단에서 빗초롱축제가 있었습니

다. 그런데 효과가 조금 다른 부서지만 미미해서 이번 연도는 서울빛초롱을 서울시청에서 빼겠다라는 것을 관광재단에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스के이트장이 계속 또 루즈하게 그냥 스के이트만 타는 그런 식으로 계속 가고, 빛초롱도 조금 컨셉이 안 맞는다 해서 저희가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아트,

○ 사업부서

- 미디어 파사드는 크게 두 공간입니다. 서울도서관 벽면인데요, 이게 정면과 옆 측면까지 하면 100m가 될 겁니다. 100m에 높이가 15m 정도 될 것 같고요. 이 벽면과 그리고 스के이트장 바닥, 그라운드 미디어 파사드가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작품은 한 7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3D 프로젝트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통합할 수 있는 시그니처 작품이 한 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도서관에 작품이 한 3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작품은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션트래킹 기법으로 시민들이 스কে이트를 탈 때 동선을 따라가는 그런 인터랙티브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작가는 미디어 작품들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 ○○○ 위원

- 뭔가 서울시의 관광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의 증진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서울시의 브랜드와 관련한 컨셉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예, 서울색도 같이 적용해서 인터랙션 할 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 위원

- DDP에서 하는 서울라이트하고, 작년에 거리예술축제인가 그걸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은 시기에 맞물려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컨셉이 겹치거나 또 어쨌든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분산되게 되면 이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어쨌든 광화문하고, DDP하고, 또 그러면 시청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보셨는지.

○ 사업부서

- 저희가 용역을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에 5개 권역, 말씀 주신 DDP랑 광화문, 시청광장, 그리고 강남역까지 다 5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군데가 각각의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요 시청권역이 지금 빛 미디어아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약해서 시청을 빛 미디어아트로 어떤 빛축제를 만든다면 거점 형식으로 다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보도자료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서울 상징을 광화문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통이 편리해서 광화문이라고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과 시청을 연결할 수 있는 중심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컨셉이 어떠냐 그랬는데 광화문은 역사성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역사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DDP는 거대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컨셉으로도 메가 캠퍼스라는 거대한 캠퍼스의 역할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스케이트장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팝하고, 그리고 미디어아트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각의 컨셉은 다 다릅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혹시 위원님 질문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해 주시죠.

○ ○○○ 위원

- 기간이 12월 20일부터 다음 해 1월 5일까지잖아요?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 위원

- 혹시 이때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예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디어아트를 빔프로젝터를 쓰다 보니까요 예산이 장기간 길어지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 ○○○ 위원

- 기간을 17일로 잡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기를.

○ 사업부서

- 시기는 실질적으로 개장 날짜에 맞춰서 했고요. 스케이트장 개장 날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가 낄 때 제일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12월 달로 지금 먼저 정했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시기에 광화문광장에서도 행사를 하고, 또 DDP에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빛축제 하는 것들이 자치구 단위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아니면 그게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한 데 모아서 그 시기에만 딱 서울시 전역에서,

○ 사업부서

-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축제를 광화문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분산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제가 해보니까 12월 31일 딱 끝나잖아요? 끝나고 1월 달에 들어가면 급격히 사람들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축제보다는 새해를 계획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방문객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조금 다운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12월 달은 길게, 1월 달은 짧게,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 답변되셨을까요?

○ ○○○ 위원

- 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퇴실하셔서 바로 여쭙볼 텐데요. 혹시 부적정 계신가요? 지금 단계별로 제가 여쭙볼 텐데 부적정은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안 계실 것 같고, 재검토 거수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검토 필요하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그러면 조건부 추진 있으실까요?

조건부 추진이 6분 계시네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일단 걱정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 과반수가 넘었고 지금 6분이 조건부 추진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견을 취합해보면 몇 가지 공통사항들이 서울콘하고 기타 타 유사 사업들하고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본 사업의 취지가 약간 핵심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게 일단 서울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컨셉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본 사업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라든가 시놉시스나 컨셉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만 있었고, 시놉시스로 어떤 어떠한 콘텐츠를 반영을 해서 스케이트장이라든가, 또 서울시 도서관 경관에 서울의 아이콘이 잘 보일 수 있는 이런 콘텐츠로 미디어 아트를 구현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저도 긍정적 의견을 표현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소 아쉽게 평가를 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또 서울 시내, 또는 서울을 방문하는 내국인들 의견만으로 이런 부분 좀 관심 있다 이런 것들이 부각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기서 협의되는 게 합당한가.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서에서는 외국인 대상으로 벤치마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현실적인 답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수렴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동대문하고 아까 비교하실 때 저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 사업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부서의 어떤

차별성하고 타 사업하고 이걸 어떻게 다르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최종 의견을 합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 위원

- 이것을 한 번 더, 그러니까 조건부 심사 중에서 2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2단계 심사는 예산 편성은 가능하지만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한 번 더 투자심사를 통해서 달아주신 조건이 구체적으로 됐는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 군데에서 연계가 잘 돼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동시에 하다 보니 분산돼서 오히려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판단은 조금 더 공들여서 계획을 세워서 시너지를 낼 것인지, 아니면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계획서를 받고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조건부이지만 2단계 심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지금 중요한 의견 주셨는데, 2단계 심사가 필요한 조건부 추진이 어떠한지. 그럼 이것도 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2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 ○○○ 위원

- 일단 그럼 저도 발언권 한 번만 요청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 네네.

○ ○○○ 위원

- 저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된 건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포인트 중에서 시

민들이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동일한 행사가 중복된 기간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들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DDP랑 광화문, 그리고 시청까지 해가지고 3개를 연달아 다니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울시만을 위한 관광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지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외국인 분들과 관련된 의견이 있었는데, 외국인 분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초반에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B/C 타당성 조사를 거쳤을 때 검토가 적정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외국인 분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검토 적정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외국인까지 포함했을 때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되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적정으로 그냥 추진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사실 유사 사업을 합치려는 노력이 서울시에서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솔직히 빛만 보면 광화문, DDP, 시청이지만 청계천에서 무슨 등축제 같은 것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도심권에 행사는 4개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도록 뭔가 부서가 고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이걸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로 합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 ○○○ 위원

-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게 중복으로 볼 것이냐, 위원님 말씀대로 시너지를 내게 할 것이냐인데 시너지를 내게 하려면 정말 이게 함께 여러 부서가 모여서 기획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업들까지 다 합쳐서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 위원

- 그렇지 않는다고, 어쨌든 다시 가져오실 때는 그러면 결국은 다른 것들하고 컨셉을 어떻게 통일해서 연결된 그런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 ○○○ 위원

- 그리고 혹시 스के이트장 바닥에 센서 다는 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작동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사업에서 빼라고 하시는 것도.

○ ○○○ 위원

-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스কে이트를 주로 주간에 하고 야간에는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는데 스কে이트를 타다 보면 이 빛이 안전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 ○○○ 위원

- 왜냐하면 아이들 노는 키즈카페에서 봤을 때 애가 10명만 모여도 벌써 에러가 나버리기 때문에 아마 바닥 것은 사실 없애도 되는 것 같아요.

○ 위원장

- 이 기술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본 사업 말고 콘텐츠진흥원에 지금 기술평가위원으로 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실감콘텐츠 분야에서 이것을 제가 예를 들면 강원도 평창에서 올림픽 하고 나서 거기가 공간이 유희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이렇게 좀 유사한 사업으로 스के이트 바닥에 프로젝션 매핑을 쏘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걸 지금 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람객 모으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걸로 봤을 때에는 최대한 다수의 시민들 모였을 때 안시 조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센서 민감도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프로젝션을 할 때 빛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돼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중요한 말씀하신 것을 기술 구현할 때 최대한 어떻게 안전하면서도 가장 에러 없이 무난하게 구현될 수 있는지. 고도화된 기술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 ○○○ 위원

- 그런데 구현할 걸 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쓸 것 같으니 그것은 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이것은 한번 쓸 필요는 있다는 거죠.

○ 위원장

- 그럼 일단 이런 부분들은 2차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에 제가 일단 기재를 할까요?

○ ○○○ 위원

- 2단계 심사를 할지만 판단해 주시면 의견은 그냥 조건으로 달면 되는 것이라서 굳이 2단계 안 봐도 된다고 하시면 그냥 조건으로만 달면 되는 거거든요.

○ 위원장

- 그러면 여기서 조건부 추진이 사실은 이미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반복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2단계 심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2단계 심사가 굳이 필요 없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갖고 걸로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2단계가 필요하다라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6분이시죠?

그럼 지금 위원님들이 6분이 2단계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감안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견이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리듬앤라이트 서울 빛축제' 관련 건은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또 2단계 재심사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3.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저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혹시 2월에서 3월 사이에 대학생 중앙기획단 공개모집이 이미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같이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신 부분이,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 위원

- 혹시 이번에 투심에서 이게 부적정 판정이 난다고 하면 이후 단계에서는 대학생중앙기획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 사업부서

-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기가 있었고요, 올해는 2기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빨리 진행했던 사유가 뭐였냐 하면 작년에 학교 학생들이 학사 일정이 있어요. 올해도 지금 그래서 되게 힘들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MT를 가고 있고요, 또 학교 대학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작년에 접하다 보니까 진행 자체가 되게 더뎠어요. 그리고 방학을 맞고, 실질적으로 움직인 게 8월 말에 개학을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기획단계는 되게 길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모집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진행을 빨리 하는 이유가 6월 전에 아이들 방학하기 전에 모집까지 끝내버리려고 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의치 않다고 하면 저희 자체 예산이 지금 2억 9천을 확보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주셔도 밀고 나가야지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음)

○ 위원장

- 그럼 두 번째 위원님 질문 주시죠.

○ ○○○ 위원

- 작년하고 차별성을 두시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대학 연계 학술포럼 구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발제자가 대학교수님이시고. 그런데 이 행사의 취지가 사실은 참가자들이 청년들이고 대학생들이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포럼 내용은 조금 진부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 사업부서

- 진부합니다.(웃음)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비슷하게 질문하시는 것들이 뭐냐 하면 축제의 차별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문화축제라는 것을 타이틀을 걸고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축제 현장을 가면 다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음식부스, 홍보부스, 먹거리 다 있고, 그냥 축제는 기본적으로 음악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학도시가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가려면 대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회를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관계에서 그냥 동동거리면서 T/F 까지 운영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컸고요. 올해는 조금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학교 안으로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가 지금 보면 지역상권하고 학교가 동떨어진 면이 좀 있어요. 어디나 다 비슷한 형태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 축제기간만이라도 대학의 문을 좀 열어서 같이 연계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주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접하는 어떤 문화를 겪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저희가 학술포럼을 얘기를 했는데, 이 학술포럼의 내용은 그때그때 해년마다 주제가 좀 달라질 것이라고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시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죠. 지방에 소멸되는 도시도 되게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이 대학이 어떤 것들을 제안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학자는 한 분이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의 관계자나 아니면 지역의 학생들은 당연히 들어와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묶어낼 것이고요.

지금 도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나중에 저희 세미나 할 때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개최 장소를 작년에 비해서 확대한다고 하신 것 같아서,

○ 사업부서

- 저희가 작년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확대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왜 빨리 서두르냐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이들 모집을 하는 데 한계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있었다면 아마 작년에 이대까지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가 작년에 열심히 모으기는 했는데 한 50개, 70개 정도 여기서 머물다 보니까 행사장 안에서 풀어내는 것으로 딱 충분했고요. 올해는 지금 빨리 서둘러서 이걸 작년에 한 번 이미지도 구축했기 때문에 올해 많이 모집해서 100개 이상이 넘어간다고 하면 올해 이대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 ○○○ 위원

-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개최 장소도 확대를 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행사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52만 7천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행사의 세부내용도 행사 개최 시기가 9월 말인데 거리퍼레이드도 있고, 공연도 있고, 음식부스도 운영하려고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이 계획서상의 안전관리 계획을 확인을 했을 때는 안전관리요원들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되고, 행사 안전계획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마련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이 불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여쭙보려고 했거든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 자료 자체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고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약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작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말 그대로 차가 다니는 거리입니다. 연세로하고 명물거리 이런 데, 창천공원하고 이런 데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길 사이에 보면 명물거리 같은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를 지나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좀 예민한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안 막던 것을 한번 저희가 처음으로 막아봤고요. 왜냐하면

이대까지 확장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되게 힘들어서 작년에는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에 저희 직원까지 해서 2개조로 해서 현장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230~300명 정도가 안전요원하고 교통통제요원으로 현장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이후에 안전관리나 이런 것도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 개최도 다 해가지고 통과 받고, 지적 다 한 것을 현장에서 녹여내 가면서 큰 사고 없이 진행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서 준비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 하시죠.

○ ○○○ 위원

- 작년에 1회 하셨잖아요?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 사업부서

- 작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에서 시비 포함해서 7천을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한 2억 9천의 전체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갖고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같은 걸 조금 받으려고 했는데, 그걸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물품으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아이들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품으로 해서 선물꾸러미 하나씩 주고 끝낸 이런 형태로 같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포럼 말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행사가 제일 많이 달라진 게 뭐예요?

○ 사업부서

-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럼을 기본 베이스로 갈 것이고, 개막식을 지금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생각은 1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1기 대학생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가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장, 부단장하고 5개의 팀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아이들이 있어서 회의를 몇 번 했는

데 이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현장에 바로 녹여내면 좋았을 것을 예산의 한계성으로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올해는 그래서 개막식 자체가 크게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이것을 올해는 좀 확장을 많이 해서 개막식 자체를 첫날 좀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막식에 누가 주로 들어왔냐 하면 대학생 응원단하고 기수단 아이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애네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볼거리도 풍부하고, 나중에 가서 개막식 때 무대에서 합동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사님들 인사말씀 하고 공연으로 해서 개막식 하루 행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금 동네를 한번 돌고 싶어요, 골목길을. 그래서 지금 카퍼레이드를 지금 1일차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 ○○○ 위원

- 제가 그걸 왜 여쭙봤냐 하면 지금 행사기간이 작년에는 4일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3일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간이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거의 30~40% 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다 어디에 쓰이는가가 궁금해서 여쭙봤고요. 알겠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올해 줄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작년에는 행사를 전야제로 해서 4일을 했고요. 그런데 그 대신 오케스트라가 저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나와서 길거리 공연을 알리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야제 행사고, 올해는 굳이 그렇게까지 알림이 필요 없고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하에 3일로 축소해서 하려고 합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고요. 말씀 주신 것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잘 반영 부탁드립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그럼 세 번째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에 대한 안전을 한번 상정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부적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실까
요? 혹시 재검토 필요하다라는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러면 조건부 추진 있으실까요? 조건부 추진.
그럼 본 사업은 거의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적정으로 보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으로 하고요. 적정은 그냥 간단한 부분으로
만 제가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의견은 안전사고, 안전에 대해서만 그것을 조금 해 주세요.

○ 위원장

-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적정으로 하도
록 하고.

4. 가을밤의 음악회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작년에 4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나요?

○ 사업부서

- 네. 작년에는 좌석을 4천 석을 깔았고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서서 구
경하시고 해서 5천 명 정도 오셨습니다.

○ ○○○ 위원

- 그래서 올해는 5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 사업부서

- 네네.

○ ○○○ 위원

-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메인무대에 관람할 수 있는 인원 좌석 수가 2천 석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행사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최 장소와 관객 수용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그 문제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나요?

○ 사업부서

- 저희도 4.19 민주묘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잔디 그쪽을 더 활용하고 싶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4.19 민주묘지랑 협의를 해서 잔디 부분에도 좌석을 배치할 수 있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로 관람하시는 연령층들이 굉장히 다양하기는 한데 특히 이 행사에 관심 갖고 오시는 분들의 대상이라든가, 또 이쪽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고령의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도 특별히 또 와서 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특화돼서 이런 본 사업에 관심을 많이 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휠체어가 진입한다든지, 아니면 또 고령자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입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물리적 공간에 대한 설계가 구체적으로 1차로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공간 구성에 대해서,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간 구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 묘지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휠체어가 지나다니는 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사실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전 세대를 다 아우르는 건데 저희가 사실 취지 자체는 젊은 세대를 이어가고 잊혀져가는 4.19를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 좀 어린 친구들을 타깃으로 현재로서는 사실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젊은층만 타깃으로

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젊은층에게 잊혀져가는 4.19를 알리고 싶어서 한다는 것을 첫째 말씀을 드리고요.

고령자분들 많이 오시고요, 휠체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동선이 다 있거든요. 뒤쪽으로 다 돌아서 안내요원이 다 안내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동선 확보는 다 돼 있고. 그쪽 자체가 워낙 지대가 넓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나다니고 하는 데 문제는 전혀 될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 특히 관람하시는 데 있어서 휠체어에 앉아서 또 보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통 공연 관람할 때 보면 일반좌석이 있고, 휠체어 좌석이 있고, 또 가족 단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소년 대상으로 하지만 솔직히 그쪽 지역적인 부분을 1차로 제가 점검해 봤거든요. 그런데 약간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아요. 지금 이 인구분포도를 보면. 그러면 분명히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유모차든 휠체어든 이렇게 특수한 동선에 따라서 올 수 있는 그런 원활한 공간이나 동선을 어떻게 마련을 하시는지, 그런 좀 섬세한 부분까지 체크를 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여쭙본 거였거든요.

○ 사업부서

- 저희가 2회 동안 했었고, 행사장 바깥으로도 되게 많이 있어서 행사장 바깥으로 돌아가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안내요원이 안내를 해서 돌아가서 올라가는 형식으로 올라가서 지난 2년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 위원

- 하나만 여쭙볼게요. 작년에는 행사할 때 기부금 3억을 받아서 했네요? 금년도는 기부금이나 이런 건 없나요?

○ 사업부서

- 없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 자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 위원

- 작년에 기부는 어디서,

○ 사업부서

- 4.19 공법 3단체에서 후원하고 저희가 시행을 한 거죠. 4.19민주혁명회, 4.19희생자유족회, 공로자혁명회에서 기부 받은 걸 저희가 한 거죠.

○ 사업부서

- 실제로 받은 것은 신한은행이라고 은행 쪽 그쪽에서도 esg 경영 때문에 4.19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공모 3단체에 기부를 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기부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부서

-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세대보다는 젊은세대들이 더 많이 옵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고. 노인 연세 많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 작년 2년차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사업부서

- 네, 멀리서도 많이 오시고. 강북구 주민도 많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 ○○○ 위원

- 행사에 대한 홍보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보통 하시나요? 여기 지금 예산에도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그냥 현수막이랑 전단지 이런 것밖에 없어서.

○ 사업부서

- 일단 주체가 강북구청이라서요 강북구 SNS나 이쪽을 통해서 SNS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있고요.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시간관계상 일단 충분한 질문이 다 된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잘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네 번째 ‘가을밤의 음악회’에 대해서 바로 제가 부적정, 재검토, 조건부 추진, 적정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 한 분이 잠깐 자리 비우셨죠? 지금 위원님이 다 계셔야 협의가 될 것 같은데요.

○ 간사

-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우선 부적정 의견 있으실까요?

○ ○○○ 위원

- 저는 강북구 자체행사인 것 같아요. 4.19문화제를 4월에 지원을 시가 해주는데 가을 행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두 번 해보고 제가 볼 때는 시 예산으로 지원한 거거든요. 굳이 이것을 저희가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진짜 중요하면 예전 방법으로 공법단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하든지 강북구 예산으로 해야지 이것까지 해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강북구민들만을 위한 행사지 서울시 전체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 ○○○ 위원

-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자치구의 축제나 행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부서에서는 상정을 한 것 같고요.

○ ○○○ 위원

- 그런데 왜냐하면 4.19문화제를 한 번 봤는데 사실은 가을 걸 또 신청한 거잖아요.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부적정 의견을 한 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듣고 조금 의견에 변화가 있으실까요? 부적정 의견 주신 위원님 계실까요?

이것은 부적정 해서 사유를 한 건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제가 한 분 위원님 주신 것을 표기하고요. 재검토 필요하다라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재검토.

없으시면, 그러면 조건부 추진 있으실까요?

네 분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일단 적정으로 보실까요?

그러면 총 합산해 보면 부적정 의견 한 분 주셨고, 조건부 추진은 4분, 그리고 적정은 5분으로 집계가 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1차로 볼 때 적정하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이 질문 주신 것 보니까 조건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좀 의견이 바뀌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예산에 관련된 문제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가 과연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홍보에 대한 부분도 홍보전략이 분명해야 되는데 너무 노멀하게 그냥 'SNS, 유튜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투입되는 비용 대비 이게 전략적으로 뭔가 되게 구체화된 그런 안전들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사실 그래서 조건부 추진으로 제가 의견을 바꾼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걱정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 ○○○ 위원

- 조건이라고 했었던 이유가 그냥 문화행사 플러스 공원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현장이 국립묘지거든요. 그런데 국립묘지가 너무 그

냥 하나의 음악회 장소와 공원과 이런 식으로만 표현되고 있고, 사실은 거기서 하는 행사들도 과연 취지에 맞는지.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점을 ○○○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VIP 초청 계획이 관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시·구의원, 강북경찰서장, 북부보훈 처장 이런 식이다 보니까 지역행사로 사실 보이다 보니까 세 가지 쟁점이 하나는 이게 문화만의 것이 아니라 보훈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맥락을 갖고 진혼무까지 하다가 갑자기 페이스 페이팅하고 이런 것이 막 나오니까 뭔가가 이게 갑자기 오락 축제같이 된 부분이 좀 이상했고. 두 번째는 너무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요. VIP에는 적어도 그러면 보훈대상자나 유공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역의 VIP만 불러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상자가 VIP도 보니까 조금 취지가 이상해 보이고. 너무 보훈틱 하지가 않고 문화행사틱하고, 그다음에 너무 지역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라고 하는 게 묘지에서 하는 취지가 살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위원장

- 지금 중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건 바이 건으로 가다 보니까 부적정이 한 분이고 조건부가 4분 계셨고, 그런데 또 적정이 5분이세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적정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 간사

- 조건부로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추진으로. 왜냐하면 지금 부적정과 조건부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취합해서 아마 조건부로 지금 무게를 실은 것 같습니다. 본 사안은 조건부 추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 진관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지금 현재 은평생활문화센터 모여락 이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26년도에 응암제2동 복합문화센터도 건립이 될 것이고, 공공도서관도 조성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27년에 개관 예정인 증산복합문화센터도 건립 예정이라고 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게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는 검토가 저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 사업부서

- 우선 생활문화센터가 연신내역 부근에 있어서 한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울시 행정동 중에서 면적은 두 번째로 넓고요, 또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자치회관에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턱없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걸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사업부서

-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응암2동 복합문화센터, 증산동센터, 응암정보도서관 쪽하고 진관동하고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신내에 가까운 모여락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연면적이 한 300㎡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한 1,500㎡로 해가지고 진짜 생활문화센터를 제대로 그 본연의 기능을 누릴 수 있는 기능과 청소년들 상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센터거든요.

○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지금 여기에 가장 주요 목적이 청소년들 비율이 높다고 말씀했던 청소년과 관련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인근 학교나 이런 데에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여쭙보셨을까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주로 통장회의 동 업무보고, 수시로 직능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 구파발이나 연신내 쪽에 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수시교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나중에 같이 연계해서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 사업부서

- 네,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계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럼 메인 테마가 청소년인가요, 생활문화센터인가요?

○ 사업부서

- 메인센터는 생활문화센터고요. 그밖에 층을 나누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청소년들의 유입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의견도 아까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주민자치회나 직능단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 사업부서

- 진관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 학교하고 늘 교류를 하면서 자치위원 중에서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교류를 하면서 또 자치회에서 장학금도 주고, 학교하고 교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 사업부서

- 참고적으로 지금 시설계획도 현재 응암동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 시설에 다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 ○○○ 위원

- 향후 운영할 때 운영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별도로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때도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몇 % 이상 하겠다, 아니면 주민 관련된 복지사업을 몇 % 이상 하겠다 하는 기준이나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도 확정된 부분이 있으실까요?

○ 사업부서

-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시설이 완공이 되기 전에는 주민들이나 청소년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용역 들어가기 전에도 한 400명 정도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청소년센터가 시립은평수련관에 들어가 있다가 2026년까지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나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상담공간, 심리센터, 교육실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 사업부서

- 그리고 참고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초·중·고 학교를 합쳐서 한 62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은평구의 학교 밖 청소년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요? 은평구랑 그 주변 구들에서요. 7층, 8층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니까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제대로 파악된 인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한 100명 내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한 개층과 한 층 반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방도 있고.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위원님 한 분만 질문 받고 바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꼭 필요하신 질문.

○ ○○○ 위원

- 지금 여기 건물 8층하고 7층이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센터의 상담하거나 이런 실적들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 사업부서

-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되게 지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립 청소년수련관에 면적이 77㎡,

○ ○○○ 위원

- 면적을 여쭙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상담하거나 이런 실적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사업부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간 방문하거나 하는 학생 수는 1,300명 정도입니다.

○ 사업부서

- 상담하고 다 하는 인원이.

○ ○○○ 위원

- 그럼 하루에 한 4~5명?

○ 사업부서

- 네.

○ ○○○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적지 않은 것 아닌가요?

○ 사업부서

- 원래 기존 면적 얘기하시는 건가요?

○ ○○○ 위원

- 그러면 그러한 연간 1,300명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7층, 8층 2개층을 쓰신다는 거죠?

○ 사업부서

- 현재 시설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 ○○○ 위원

- 그러니까 옮기는데 7층, 8층 2개층을 전용으로 해서 학교밖청소년 상담하는 데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좀 과하지 않아요?

○ 사업부서

- 심리상담하고 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 ○○○ 위원

- 방금 전에 상담한 실적을 여쭙본 게 1,300명이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잖아요?

○ 사업부서

- 네.

○ 사업부서

-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상 그분들의 상담시간이 길고, 또 어떤 별도의 공간이 사실은 마련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 위원

- 최종하지만 1,300명이라고 하는 게 건이예요, 명이예요?

○ 사업부서

- 명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그 특성을 생각하면, 접근성을 생각하면 진관동이 맞아요?

○ 사업부서

- 오히려 진관동이 맞죠.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시립 은평청소년수련관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저희 그냥 일반 주민들이 올라가기에도 굉장히 경사져가지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교통편이 불편하고.

○ ○○○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은평구에 평지인 지역도 많고, 구청 주변 중심부 쪽에서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이거든요.

○ 사업부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걸 계획을 해서 부지가 이미 매입이 돼 있는 상태여서 거기다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 시간관계상 일단 위원님들이 다 끌고루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본 평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최대한 한번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위원장

- 이제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할 순서가 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정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로 손들어주십시오. 4분이십니다. 그럼 적정히 지금 현재 4분 나왔고요. 조건부 추진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 6분이십니다.

조건부 추진으로 의견이 많이 취합이 돼서 이 조건부 취합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측에서도 의견을 1차로 정리해 주신 게 위치는 대체로 적절한데 서울시의 공사비 가이드에 맞춰서 각각의 전용

면적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비 원래 물리적인 공간 이런 부분들이 일부 협소한 제약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되는 사안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주셨고.

위원님들 질의·응답 통해서 보면 이 외에도 은평구 자체로 봤을 때 유사사업의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께서 충분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로 봤을 때 일단 은평구라는 위치로 볼 때에는 말 그대로 진관동에다 설립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미 응암동이라든가, 또 제가 알기로는 구산동에도 유사한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도 위치를 보니까 진관동하고 거리가 있어서, 또 진관동에 실제로 제가 거기에 검토할 사안이 있어서 한번 평가하러 간 제 개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신규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인구 유입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새로 아파트가 건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층의 인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그렇다 보면 청소년과 기타 가족들의 전반적인 문화센터 건립,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청소년층에 대해서 기존에 상담이나 아니면 기타 문화활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이번 진관동생활문화센터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추모공원 장사시설 확충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이게 지금 공사계획을 봤을 때는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에 추가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추가 대책을 저희가 좀 확인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의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데 그 사이에 공사차량 접철 게 분명한데 거기서 공사를 하면서 화장장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대안을 갖고 계신지.

○ 사업부서

- 화장장 11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낮에 유족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소리나는 공사나 그런 건 안 할 것이고요, 야간작업으로 돌리고. 낮에는 그 외에 운영 중에 할 수 있는 공사로 할까 합니다.

○ ○○○ 위원

- 공사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잡은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사업부서

- 좀 급하게 잡아서 약간 부족한 면은 있는데요, 그것은 검토 좀 해 주시면 저희가.

○ 위원장

- 그럼 답변이 마무리됐으면 다른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 ○○○ 위원

-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화장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코로나 당시에 고령층 인구에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좀 과다 집계가 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사업부서

- 당연히 있습니다. 감염병만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계절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152건의 화장 수요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22년 3월에는 248건, 하루에 평균 이렇게 돌아가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사망자 수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시 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 위원장

- 위원님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계실까요?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됐다고 판단되고요, 여기서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위원장

- 적정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로 해 주십시오.
거의 다 지금 적정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따로 여쭙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원 만장일치로 적정으로 의견을 주셨고, 간략하게 그냥 제가 평가내용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위원님들 적정으로 다 의견 주신 것으로 취합하고.

7. 신중양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8. 통인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몇 가지 조금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평가표 점수를 먼저 물어보고 싶거든요. 304페이지 평가항목 배점에서 디자인 혁신성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시겠다고, 발표 평가 60점 만점이라고 쓰신 다음에 밑에 항목을 다 더 하면 75점이 나와가지고 잘 해석이 안 되었고. 또 75점이라고 치더라도 사업계획성 적정성에 대한 게 30%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얘기하신 대로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좀 미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통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특색 있고 브랜드가 보이는데 앞에 신중양시장은 아무리 봐도 건물 외에는 사실 컨셉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신중양시장이 너무 조금 통인시장에 비해서 상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인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제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와.

네 번째는 사실 전통시장 자체를 사람들이 안 좋아했던 게 하드웨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있거든요. 그 행태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짧게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있는 평가항목 배점은 저희가 오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계획 적절성이 20점, 사업 시행여건이 15점입니다.

디자인 혁신은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요, 사업계획의 적절성에 디자인 혁신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가 반영이 돼 있지만 전통시장을 디자인 혁신하기 위해서 주변 주역 자원과 기반, 그리고 사업 시행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아까 통인시장처럼 경복궁과 이런 지역 자원이 있는지, 신중양처럼 DDP 등과 어우러질 수 있는 역사문화적 자원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입지 기반시설, 그리고 사업 시행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중양시장의 디자인 혁신하기 위한 그런 요소나 매력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면,

○ ○○○ 위원

- 그러니까 컨셉이. 통인은 전통 창살이 딱 나오는데 여기는 현대적인 건축물 얘기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 사업부서

- 신중양시장의 주변으로 보면 굉장히 자원들이 많습니다. DDP, 그리고 신당역 시장 바로 아래 신당창작아케이드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동묘 구제시장, 그리고 떡볶이타운. 이런 문화시설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고 굉장히 지근거리가 가깝습니다. 얼마든지 주변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장점들을 갖고 있고. 또 옆에는 MZ들이 찾고 있는 힙당동이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MZ들이 신중양시장 바로 옆으로 힙당동이라고 불리는 상권들이 형성이 돼 있어서 연계될 수 있는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희가 선정할

당시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토바이 제한 부분은 관련해서 저희가 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오토바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수시로 오토바이가 드나든다거나 제한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다라는 한계를 느껴서 저희도 자치구와 협의를 했었고, 자치구도 그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오토바이 제한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광장시장이랑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로 성공했던 대표사례고, 그 반대급부로 광장시장이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로 관광명소화 된 시장 하면 광장시장을 부정할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로 관광명소화가 된 시장도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착안을 한 것은 모두가 비슷한 시장을 만들면 결국은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렸지만 모든 시장들이 특색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착안을 했던 견해 외에 보면 산타카테리나나 아니면 마케토리라던가 저희가 참고했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시각적으로 잡아끌 수 있는 요소들을 같이 발굴하면 좋겠다라는 안으로 하드웨어에 중점을 뒀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토바이 제한 관련된 부분은 자치구 국장님 나와 계신데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들은 현재 2017년부터 거기가 2시부터 7시까지 차 없는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상 강력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끝나고 난다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거기가 완전히 사람들이 통행하고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또 질문 부탁드립니다.

○ ○○○ 위원

- 작년 9월에 투자심사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해서 재검

토 나온 적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작년 말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나왔나요?

○ 사업부서

- 기본계획은 완료됐고,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금 이번 투자심사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 ○○○ 위원

- 지금도 이렇게 제가 보면 아케이드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난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구체적으로 달라진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사업부서

- 1차 사업계획에서도 저희가 지적 받았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디자인 혁신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지 좀 내용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의 한계인데 어떻게 보면 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이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 정도가 이번 기본계획에 많이 담겼고요. 어떤 디자인이 있는가는 사실 그 다음 단계에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이 단계에는 좀 부족하게 담겨 있는 게 사실입니다.

○ ○○○ 위원

-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쭙볼게요. 지난번 투심에서는 신중양시장이 90명 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4억인데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되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65억 정도는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죠?

○ 사업부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서도 지적이 왔던 부분인데요, 과연 기존에 있던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를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었지만 사업비에서도 관련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금회에 산출을 할 때에는 사업비 쪽에 좀 집중을 뒀었고. 기존 종전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종전에는 저희가 사업을 너무 신속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한 달 만에 이 투자심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시장 길이라든가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 지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시장 길이를 재측정하고 면적도 측정하고, 그리고 기존 아케이드 철거비용, 공사비용을 책정할 때 있어서 기존에 나라장터에서 했던 유사 사례를 발굴하고 서울시에서 했던 유사 사례를 발굴해서 평균사업비의 약 1.5배를 맞췄습니다.

그 1.5배라고 한 건 그냥 1.5배를 저희가 맞춘 게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게 반영이 됐고, 디자인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사례다 보니까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을 어떤 사례를 끌고 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1.5배 정도의 예산을 맞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통인시장은 변동이 거의 없는데 통인시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산정을 하신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건축단가, 철거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시간관계상 거의 위원님들이 다 질문 주신 것 같아서요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위원장

- 그러면 의견을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취합하기 위해서 여쭙볼 텐데요. 지금 사안을 보시면 사실 발표는 7번, 8번 안건을 통합적으로 발표는 하셨는데 아마도 질의·응답 통해서 신중양시장에 대한 건을 처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통인시장의 디자인 혁신 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7번 신중양시장의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에 대한 건에서 걱정부터 부적정까지 제가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여쭙보고자 합니다.

우선 신중양시장 건에 대한 사안을 적정으로 보시는 위원님 거수로 손들어주십시오.

그럼 안 계시면 조건부 추진 있으십니까?

8분이시네요. 일단 다수로 조건부 추진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 다음으로 일단 재검토 있으실까요?

○ ○○○ 위원

- 예산 때문에. 그런데 어찌면 조건부에 넣어서 예산을 다시 좀 보고, 현대적인 건 있는데 딱 사로잡는 어떤 키워드가 없더라고요. 그게 안 살아 있어서.

○ 위원장

- 그러면 재검토가 일단 한 분 계신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문제와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상징성 부분이겠네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없다.

○ ○○○ 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 때문에 가라라고 할 때 현대적인 것만 하면 백화점도 있고, 살짝 뭔가 조금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반영해서 제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적정 의견이 계실까요?

○ ○○○ 위원

- 저도 아까 재검토 했습니다.

○ 위원장

- 재검토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재검토는 두 분이 해주셨고, 조건부 추진으로 해주셔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의견 취합했을 때는 조건부 추진에서 아까 반영해야 될 사안들과 그다음에 또 예산 투입 대비 거기서 산출되는 효과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은 되었는데 조건부 추진에서 그냥 조건부 추진으로 할지, 아니면 2단계의 재검토가 필요할지, 그것만 추가로 구분해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부 추진으로 그냥 가도 괜찮다고 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그럼 위원님 한 분 계시고. 그럼 이미 조건부 추진에서 다른 9분의 위원님들은 2단계 검토가 필요하신 겁니까?

○ ○○○ 위원

- 이게 지금 7번, 8번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 아니요, 지금 7번입니다. 지금 현재는 발표는 한 팀이 하셨는데 7번에 대한 건입니다. 그럼 7번 안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추진으로 하되 이것을 2단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일단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2단계 심사입니다.

○ 위원장

- 네, 2단계 심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8번 안건, 통인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더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인시장 검토 건에 대해서 일단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건부 추진 손 들어주십시오.

9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조건부 추진이 9분이셔서 조건부 추진하고, 재검토 있으실까요?

○ ○○○ 위원
- 저는 재검토.

○ 위원장
- 재검토에 의견 하면 여기 지금 조건부 추진이 나와서 어차피 의견을 제가 기재해야 됩니다. 혹시 상세 의견은 그냥 반영을 할까 하는데,

○ ○○○ 위원
- 그럼 그냥 조건부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냥 조건부 추진으로 만장일치로 제가 바뀌도 될까요?

○ ○○○ 위원
- 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그럼 여기서도 일단 형식상 여쭙보겠습니다. 그냥 조건부 추진으로 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2단계 심사가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하겠습니다. 조건부 추진으로 그냥 가도 무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저는 그냥 조건부 추진으로 일단 들도록 하고요.
그러면 일단 4분이 조건부 추진인데, 그럼 다른 위원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2단계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 ○○○ 위원
- 네.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현재 6분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본 사안도 조건부 추진으로 하되 2단계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최종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계획에서 제가 일단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 돼서 굉장히 죄송한데 휴식시간 10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 35분이고요, 지금 제가

20분 지연돼서 매우 죄송하고, 3시 4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9. 모래내고가 성능개선(개축) 공사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이걸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보수보강과의 비교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철거 후에 전면 건축이 아니라 보수보강과의 비교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95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시트법이 생겨서 그때부터 정밀안전도를 시행했습니다. 90년도에 처음에 했을 때 D등급. D등급 같은 경우는 사용제한이나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도 모래내고가가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취약한 시기입니다. 보통 교량은 한 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의 라멘구조, 콘크리트 구조물에다가 콘크리트 박스교, 이렇게 형식이 어떻게 보면 5개 형식으로 교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선교, 밑에 지반에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수공사를 전 구간에 대해서, 이 빨간 표시가 구간인데요 지금까지 D등급 떨어지면 보수 공사에 쓰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교량 자체를 코팅을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기초보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철도구간 하부 구조이기 때문에 철도에 접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계측방안도 기존에 있는 기초는 매몰을 하고 최대한 경관을 늘려가고 양쪽에 기둥을 새로 설치해서 이런 계측 방안을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보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평균적으로 연 5억 정도. 이게 성능개선사업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연 4억에서 6억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보수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추가 질문은 결국 교량을 전면 철거하면 교통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이것을 평가를 해 주셨는데 B/C가 0.81로 나왔다가 공사 시행 시에 교통혼잡에 따른 불편익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시니까 B/C가 0.67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데, 이걸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되실까요?

○ 사업부서

- 실무자니까 확신은 못하지만 초기에 교통분석에서 B/C가 0.6 이하로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 위원

- 이렇게 산출된 근거를 어떻게 근거를 잡으셨는지. 교통혼잡에 대한 근거를 뭘로 잡으셨는지.

○ 사업부서

- 아시겠지만 철거 시를 기준으로 했고요. 철거 시를 기준으로 하고 철거 후에 완공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완공된 그때부터 그것에 대한 철거시점을 분자로 해서 산출을 한 거죠.

○ ○○○ 위원

- 알겠습니다.

○ ○○○ 위원

- 철도공사하고 협의는 됐나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투자심사이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사항이죠. 지금도 내부적으로 향후 철도계획이라든가 그것은 다 타당성 조사 하면서 조

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 ○○○ 위원

- 이런 경우에는 철도공사나 공단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 사업부서

- 그런데 저희는 철도도 우선적이 되지만 교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갖고 지금 시기를 적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 하면 최소한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라면 그때까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금 시기에 이 교량을 성능개선을 하든지 계측을 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고. 기본설계 할 때 만약에 철도구간에 교각을 어떻게 세울 것은 협의 기간에 따라서 노선이 경선이 바뀔다든가 그런 사항이지 지금의 타당성 조사 부분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단계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 사업부서

- 예, 그렇죠. 아직 기본설계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 ○○○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교량에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이 교량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잠식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신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타당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적혀 있는 의견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업비가 과다 집계되거나 과소 집계된 부분들이 있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따로 없으실까요?

○ 사업부서

-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2안을 설정을 해 갖고 노심 끝에 1안을 용역을 한 2년 동안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에 따라서 이 노선이 실질적으로 보면 공단에서 제시한 노선이 아르 구배를

조금 길게 해 갖고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철도 가선교 위에 RC 박스를 올려놓게 되면 박스 길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트를 완만하게 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져 갖고, 그래서 저희도 거리를 최대한 길이 62m 했기 때문에.

또 공투에서도 사업비 조정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장기간에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투하고 끝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설 같은 건 굉장히 좋은데 교통이 저희도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이거 기본계획 할 때도 더 교통에 대해서 해소대책, 그러니까 이면도로의 교통방지대책을 좀 할 생각인데요 이상하게도 여기는 성산대교를 넘어오면서 바로 모래내로부터 과선교를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교로도 넣을 수 있는 과선교이기 때문에 가설교로 해서 할 수도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설이 중차량이랑 이미 자연적으로 해소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투에서도 교통량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 있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사 중에는 더 안 나올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교를 놓는다든가 임시도로를 놔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계획 할 때 교통부분을 한 번 더 같이 대안을 해볼까 지금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저도 유지관리를 한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갑자기 통제하게 되면 더 위험성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위원장님 한 말씀은 좀,

○ 위원장

- 짧게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가 10월 달 되면 꼭 30년 됩니다. 저희가 30년 되고 많이 시트법이 생기고 많이 했는데도 시설물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지켜보면 선제적 보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도한 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작을 해도 앞으로 10년 후에 이 교량이 준공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

- 실무적으로는 이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밑에 철도가 있고 위에 도로를 철거하는 것이라 사실상 교통대책을 굉장히 필요로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법에 대해서도 DB18하고 24, 이 차이에 대해서 사실 저는 실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공법 문제도 어느 게 더 좋은지. 이 두 가지는 저희는 실무적인 쟁점이 있다고 봤거든요. 사업부서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이게 C등급이기 때문에 원래 등급 D등급, E등급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 ○○○ 위원

- 이 고가 같은 경우에는 성산대교에서 연세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거가 되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이 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구요. 공법이나 이런 것들은 설계 과정에서,

○ ○○○ 위원

- 그러니까 철거하지 않고, 예를 들면 예전에 목동교나 이런 것은 철거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나요?

○ ○○○ 위원

- 기존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까 공법 말씀하셔서 공법은 어떤 공법인지 그때 설계 과정에서 제안해서 그걸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제일 문제점은 교통입니다.

○ ○○○ 위원

- 거기가 엄청 밀리는 지역이죠?

○ ○○○ 위원

- 예, 상당히 밀리고, 피크타임 때는 상습정체고요.

○ ○○○ 위원

- 사실상 우회도로나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 ○○○ 위원

- 네, 없습니다. 우회하려면 천상 홍대 앞으로 우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거리인데 상당히 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나.

○ ○○○ 위원

-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 모래내고가가 무너졌다고 치고, 무너졌을 때 교통영향평가랑 상관없이 어차피 보수에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교통영향평가 없이 교통을 다시 재구축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했을 때에도 안전에 대한 타당성보다 오히려 교통영향평가가 우선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까요?

○ ○○○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1년에 보수비가 들어가는 게 보수비를 그만큼 들여서 우리가 어떤 교통대책을 세우는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느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기초안전평거나 이런 쪽에서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봤던 것이었는데,

○ ○○○ 위원

- C등급 정도니 어느 정도 시간은 줘 있다. 그동안에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수립을 해놓고 그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인 거죠.

○ ○○○ 위원

-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교량구조 자체는 좀 특이한 구조이기는 해요. 그래서 보수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C등급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 위험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교통대책부터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그걸 시나리오를 넣어서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교량의 문제점은 흔들림이고 무게라서 지금 여기에는 철도가 밑으로 지나가서 아마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좀 문제이기는 한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제어할 수 없고. 화물차가 문제인데 지금 20톤 제한을 한다고 해놨지만 아마 과다 중차량들이 좀 다닐 거예요. 그런 것을 일단은 WIM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잡아야 되고. 전면 화물차 통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중차량이 하루에 한 15대 정도 다니거든요. 20톤 이하 10톤 이상이. 그래서 그 정도면 그냥 어떤 우회노선으로 해서 좀 돌아가더라도 화물차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보수공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수공사 쪽 시나리오도 넣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교통영향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 교통영향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회도로나 신호체계 최적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넣어서, 이래야지 심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만 가지고 와서는 저는 좀 심사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의견 참고해서 일단 적정 의견부터 여쭙보겠습니다. 적정이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손 들어주십시오. 안 계시면 조건부 추진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3분이신가요?
그러면 재검토로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지금 재검토가 7분으로 일단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로 한 번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고요.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의견 주신 게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 추진될 때 교통혼잡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또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보수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잘 잡혀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사정을 잘 마련한다거나 거기에 따른 신호체계,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적 측면에서 흔들림이나 화물차 무게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의견을 주신 것으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전에 대해서는 재검토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7호선 용마산역 2번 출구 E/S 설치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지금 여기가 실은 출입구가 3개잖아요?
- 사업부서
 - 네, 3개입니다.
- ○○○ 위원
 - 2개는 에스컬레이터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것이고. 대신에 두 개가 한 쪽 도로에 몰려 있고, 한 쪽 도로에 방향성을 따지면 안 돼 있는 것이고.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럼 그 반대편 지금 설치하시고자 하는 쪽으로 저희가 교통약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다녀야 이게 당위성이 있는 건데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사업부서
 - 그쪽에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관에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

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 사업부서

-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소규모 영구임대아파트라서 사실 거기 거주민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수치적으로 보자면 일단 출구별로 거기 출구를 들어갈 때 장애인카드를 찍고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산적으로는 산출은 어려운, 출구별로는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 비율을 사실 정확히 수치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 ○○○ 위원

- 저도 웬만하면 실은 교통서비스 관점에서는 좀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는 하자는 주의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실은 이미 두 기나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더 당위성을 태우려면 그런 것도 직접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딱 보기에 지금 실은 아파트단지가 많아가지고 이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이미 설치돼 있는 이유가 보여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서비스 관점에서는 저는 필요성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실은 교통약자 비율이나 아니면 혹시 민원이 많거나 이런 뭔가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 당위성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위원

- 만약에 이것을 설치하면 지하에서부터 1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전체로 연결이 되나요?

○ 사업부서

- 여기는 출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단 내려가고, 두 단을 또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단까지만 가능하고,

○ ○○○ 위원

- 그러면 전체를 1층까지 다 에스컬레이터로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신 것이네요?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지금 이용량이 1번 출구가 몇 % 정도 되죠?

○ 사업부서

-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용마산역 출입구 현황 해가지고 1, 2, 3번 각 이용 인원과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1번 출입구가 한 65% 정도 이용 인원이 되고요. 금회 대상이 되는 2번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용마산역 인원의 16% 정도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지금 1번 출구하교의 거리는 얼마나 돼요? 지금 설치하려는 2번 출구가 3번 출구에서 가까운 것 같은데 3번 출구에서는 어느 정도 되죠?

○ 사업부서

- 50~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대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하려면 무조건 횡단보도를 신호등을 통해서 건너가야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원

- 횡단보도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 사업부서

- 두 출구 사이에 있어서 2번 출구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그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 ○○○ 위원

- 3번 출구에서 2번 출구로 횡단보도 넘으면 갈 수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횡단보도는 있습니다.

○ ○○○ 위원

- 이게 설계가 다 끝났어요?

- 사업부서
 - 네, 설계는 됐습니다.
- ○○○ 위원
 - 설계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지금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여기서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뒤에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 사업부서
 - 남부터미널.

11. 3호선 남부터미널역 4-2번 출구 E/L 설치

(사업부서 설명)

- ○○○ 위원
 - 여기도 지금 이용률이 한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업부서
 - 5.6% 정도 됩니다.
- ○○○ 위원
 -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전혀 사람이 이동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거기가 먼저 상가 부분이 일단 좀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 문제지 엘리베이터만 먼저 설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 사업부서

- 사실 투자를 만약에 적정을 받아서 이게 착공을 한다고 해도 통상 설치 기간이 한 30개월 정도는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이전에 지금 조성 추진 중인 상가부분에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그 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상가가 조성되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순서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 ○○○ 위원

- 거기 스마트팜 조성이 예정대로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무기한 연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사업부서

- 일단 '24년 8월 완공을 목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약간 지연되더라도 내년 3월 정도에는 이게 준공이 예정이라고 일단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 ○○○ 위원

- 뭔가 경제성 분석도 좀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나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에다가 이걸 다시 하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들어와야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이것도 좀 고려를 해보죠.

추가적으로 거의 모든 지금 심의안건들은 다 경제성 분석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전무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나중에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지금 남부터미널역 관련된 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더 위원님들 질문 한 분만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할까 합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 건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7호선 용마산역 2번 출구에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걱정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손 들어주십시오.
안 계시면 조건부 추진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조건부 추진 두 분이신가요? 조건부 추진 두 분 계셨습니다.
그러면 재검토 생각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손 들어주십시오.
지금 5분 있는데, 지금 재검토가 일단 5분 이상 있고.

○ ○○○ 위원

- 저는 부적정 했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여쭙본 것 중에 에스컬레이터가 전체로 지상에서 지하까지 다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단절이 돼요. 그리고 지금 또 공투에서 말씀하실 때 이게 산이라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여간 만약에 전체가 연결이 가능하다면 에스컬레이터를 두는 의미가 있는데,

○ ○○○ 위원

- 그런데 부적정을 하면 아예 앞으로 그냥 계속 못하는 그게 걸려가지고요.

○ ○○○ 위원

- 그래서 저는 뒤에 것은 모르겠는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재검토 의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재검토로.

○ ○○○ 위원

- 그러니까 저도 실은 원래는 부적정 의견인데 아까 부적정 하면 앞으로도 계속 못한다라고 하셔가지고.

○ ○○○ 위원

- 그런데 재검토도 하나의 방법이어서, 이게 처음 올라온 걸 거예요. 재검토 좋습니다. 재검토로 하시죠.

○ 위원장

- 그런 의견을 일단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1개를 설치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효과성이 있다는 이걸 좀 미비하더라는 의견으로 지금 말씀 주셨고. 또 물리적 공간으로 산하고 인접해 있는데 굳이 유동인구가 낮는데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구조에 대한 것이 쪽 연결되면 이게 사용성이 있겠지만 중간에 끊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과연 의미가 있겠냐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재검토로 의견을 올릴 때는 에스컬레이터가 그래도 만약에 가급적이면 기술적으로라도 쪽 연결이 돼서 어쨌든 사용성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증빙할 수 있다면 재검토해서 보완을 하시라는 의견으로 이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걸에 대해서는 재검토로 의견이 합치가 됐고요.

다음 11번 3호선 남부터미널에 대한 설치 건으로 의견을 먼저 여쭙보겠습니다. 먼저 적정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건부 추진 계실까요?

그럼 재검토 의견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은 재검토로,

○ ○○○ 위원

- 이게 지금 사실은 폐쇄돼서 이용률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상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부분이 나중에 정말 발생하지 않을까.

○ 위원장

- 유동인구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 ○○○ 위원

- 저도 재검토 추가할게요.

○ 위원장

- 네, 그럼 재검토가 두 분이세요. 그러면 8분의 위원님이 부적정으로 엄격하게 보시는 건가요?

○ ○○○ 위원

- 사실 이게 저희 연구원 앞이거든요. 인재개발원 앞이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 아실 것이고, 연구원 쪽도 다 아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 경험 있는 곳이거든요.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경제성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아까 질의·응답 통해서 제가 좀 기재한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용률이 매우 미흡하고, 앞으로도 조금 좀 이런 부분들이 더 고려돼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부적정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 사업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지난번 투심에서 도서관으로 하시다가 지금 다시 복합문화플라자로 했는데 지금 그 주변 인근 공항동에 공항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 사업부서

- 강서구청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구청 청사에는 거기도 도서관이 들어가는 하거든요. 거기는 어린이 유아용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 ○○○ 위원

- 말씀하신 것 이외에 도서관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목적체육관이 있거든요.

○ 사업부서

- 다목적체육관요? 그 인근에요?

○ ○○○ 위원

- 예.

○ 사업부서

-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관하고 수영장 제공 면적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등수로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22등이고요. 그다음에 평균에서도 지금 자치구별로 보통 한 5개에서 5.2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4개 정도고, 면적도 1,000명당 자치구 평균 한 80㎡ 되는데 강서 같은 경우는 43㎡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구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육시설 확충이 많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 ○○○ 위원

- 그럼 체육시설은 원래 시립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구립이 우선인가요?

○ 사업부서

- 지금 생활체육시설은 자치구에서 원래는 주체적으로 만드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이 주로 있었다가 요즘 복합체육시설로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로 생활체육시설을 시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 ○○○ 위원

- 우선 지역에 영유아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일 낮시간에는 예약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저녁시간이나 주말 시간에만 예약률이 높아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좀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서.

○ 사업부서

- 주변에 키즈카페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서울형 키즈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사업부서

- 서울형 키즈카페가 있는데 굉장히 소규모로 있고요. 161㎡ 정도 되는 소규모고, 한 달에 1,200명 정도가 하는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소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짓게 되면 한 1,000㎡ 정도 도서관 건물에 같이 지을 예정이고요. 서울형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도서관이나 체육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지금 조감도에 보면 부지 면적이 1만㎡가 되고, 건물이 2개동이고, 지상 3층이면서 앞에 정원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부지에 대한 매입가는 얼마를 산정하신 거죠?

○ 사업부서

- 부지 매입가요? 전체 토지가 약 29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은 구가 투자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 사업부서

-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전액 시비 사업이 아닌 일부 구가 분담하게 할 수 있나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시 시설에 대해서 구가 투자하거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다만 운영비가,

○ ○○○ 위원

- 지금 매입을 안 했잖아요. sh에서 지금 매입을 아직 안 했잖아요.

○ 사업부서

- 네, 아직 안 했습니다.

○ ○○○ 위원

- 그럼 매입할 때 분할한다거나 해서 일부는 도서관을 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을 하고 하면 안 되냐 이거죠.

○ 사업부서

- 지금 동시에 들어가는 건데요, 동시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LH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저희 건물 외에 토지가 비율이 좀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그게 지적사항 나올까 봐 제가 LH에 알아보았거든요. 그래서 건물 외에 나머지 필지를 그쪽에서 우리 말고 다시 다른 데로 팔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문화시설로 아마 지구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인으로 돼 있는 건물을 자투리로 쪼개서 팔면 매수할 사람이 없다, 그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 ○○○ 위원

- LH예요, SH예요?

○ 사업부서

- SH입니다.

○ 사업부서

- 구에서도 이 정도 되는 부지를 지금 강서구가 재정상황이 형편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고 그래도 매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 위원

- 지금 거기 그 주변에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가 2km 내에 있고,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는 한 1.5km 내에 있어요. 그리고 마곡 레포츠센터라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어떻게 조사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 사업부서

- 전문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그렇게 따지면 맞을 수가 있는데요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집 앞으로 걸어서 가시는 분들

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그 주변에 굉장히 수요가 많았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강서구 전체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복투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잘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

- 그런데 이 부지가 문화본부 쪽에서만 해야 되는 사업부지예요?

○ ○○○ 위원

- 문화시설이니까 문화하고 관련된 시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이 땅은 문화시설과 소관인 거예요?

○ ○○○ 위원

- 아직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소관이라고 볼 수는 없죠.

○ ○○○ 위원

- 토지의 용도가 문화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 ○○○ 위원

- 예를 들면 문화시설이라는 게 도서관하고 공연장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저도 의견이 하나 있기는 한데, 상위계획에 보시면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도 도서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현재도 복합문화도서관 같은 것들을 신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당초에 진행했던 도서관 계획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서관 계획을 진행하던 당시에 조건부 걱정이 떨어지면서 아마 체육시설이나 키즈카페 같은 것들을 추가하는 걸로 타당성을 좀 더 확보하려고 했던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보면 이번에도 부적정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번에 조건부 걱정에서 재검토가 또 떨어지면 이 사업이 또 3년 이상 진행이 될 것이고, 3년 이상 진행이 되면 결국에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투자심사를 들어올 텐데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현재 상위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재검토 대상도 아닌 부적정으로 진행을 할 건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결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저도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할 때 제일 먼저 이 땅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희지로 너무 오래 있어서 빨리 시민들이 민원을 주실 때 어떤 용도로든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빨리 용도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이 시급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 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기는 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신 것 같아서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견을 취합하고, 이게 의견이 나오겠죠. 그러면 조건부라든가 재검토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사안들을 회의록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의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걱정이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손 들어주십시오.

지금 두 분 계시는 건가요? 그럼 일단 걱정은 두 분 계시고요. 조건부 추진 거수로 손 들어주십시오.

위원님 손 드신 거죠?

그럼 재검토 필요하다는 위원님.

6분. 전원 다 나머지 위원님들이 다 손을 들어주셨네요.

그럼 지금 재검토로 말씀 주신 것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사안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계획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여기서 계속 재검토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건이 더 나아져서 더 이 사업을 좀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 의견 주시면 사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재검토 의견 중에 조금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전체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부지가 넓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부지를 분할때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치구가 체육시설에 대한 재원을 함께 투자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그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시하고 구가 부지를 다른 필지, 옆 필지를 사서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 ○○○ 위원

- 자치구에 있는 시설들이 사유지에 구청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신축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그런 사례는 없는데 지분으로 매입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되고. 특교의 형태로라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치구 시설은 운영비조차도 들이지 않으면 사실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자치구 재원이 투자가 돼야 되고 운영의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 사업 건은 재검토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13. 서울시립도서관(서대문) 조성 사업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

- 투심이 2023년 9월에 있었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이게 사업비가 암만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30% 이상 오른 이유가 물가상승분만을 반영한 건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최초 투심을 '19년에 받았습니다.

○ ○○○ 위원

- 기부금은 세입 조치가 됐나요?

○ 사업부서

- 예, 300억 중에 200억은 세입 조치가 됐고요. 100억은 8월에 착공 이후에 공정에 따라서 납부될 예정입니다.

○ ○○○ 위원

- 시설 중에 독서열람실과 독서열람석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사업부서

- 3층에 독서열람실하고,

○ ○○○ 위원

- 4층에 열람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름이 왜 다른가 싶어가지고 여쭙본 겁니다.

○ 사업부서

- 조금 용어를 달리한 것 같습니다. 똑같이 독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 ○○○ 위원

- 그러면 열람실이어서 장서도 보유하고 있고,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곳도 있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 위원

- 세 군데가 다 각각의 컨셉으로 다르게 특화돼서 열람실 3개를 3층, 4층에 운영하는 건가요?

○ ○○○ 위원

- 거기는데요 3층, 4층 서고 있지 않습니까? 서고에서 책을 꺼내는 그 과정을 유리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책을 꺼내오는 그 과정이 전부 다 로봇 팔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게 이 도서관의 컨셉입니다.

○ ○○○ 위원

- 그럼 3층, 4층 이걸 같은 시설인데 다 로봇 팔로 하는 것이고. 좌석 수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앉아서 책을 보는데 자기가 찍으면 로봇이 가서 책을 빼준다.

○ ○○○ 위원

- 네.

○ ○○○ 위원

- 그런데 실하고 석은 똑같은 거잖아요?

○ ○○○ 위원

- 실하고 석이 똑같은 것 같지는 않아요.

○ ○○○ 위원

- 그래요? 그런데 똑같다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 사업부서

- 독서열람실하고 열람석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돼서 로봇 팔이 책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들 공간 안에서도 일반 서고가 있어가지고 직접 꺼내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개별로 특화를 시키지는 않았습시다. 그래서 공간이 분리돼서 면적을 다르게 재검토를 한 겁니다.

○ 위원장

- 저도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본 안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본 바가 있는데, 사실 이 시설이 필요한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시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특화해서, 그래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라는 포인트가 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일단 가족친화적,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원활한 접근성, 그다음에 좀 더 문화적으로 이런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욕구,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본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 시설을 건립하는 데 이 당위성을 더 높여보겠다, 혹시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 하면 지금 아무래도 도서관 건립이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의 도서들을 매입하고, 요즘은 아무래도 전자책 형태로 많은 콘텐츠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설 내에서는 어린이들이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좀 더 다양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엄마, 아빠, 자녀,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령층까지 3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 뭔가 특화된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일단은 필요성 관련해서는 자료에서도 보시듯이 서북권이 굉장히 도서 기반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에는 서울시립도서관이 서울도서관 대표도서관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규모 이상 시설을 갖춘 거점 도서관을 하나 뒀서 서울도서관의 기능을 분담을 하고, 역할을 분담을 하고 지역에 있는 많은 소규모 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 큼니다. 그래서 일단 기능은 그렇고요.

저희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시설면에서는 열람실하고 자동화 서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열람실은 지금 지역 내 대부분 도서관들이 다 소규모고, 마포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층고가 천장고가 5m 되는 굉장히 큰 확장된 열람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대학 도서관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런 큰 열람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동화 서고가 있는데요 그게 투명벽을 설치

를 해서 자동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고 하는 것들을 이용객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나 프로그램 면에서는 어느 특정 계층에 특화되지는 않았고 전 계층 연령의 시민들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나 조금 특화를 하자면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그런 운영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 위원

- 주차가 저는 지금 대수가 되게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리맥에서 워낙 이것을 많이 하셔서 저도 많이 해 봤는데 결국 이렇게 공공도서관 지어버리면 주말에 주차대수가 부족해가지고 차들이 몰려서 불법주정차가 엄청 생기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약간 공원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 다른 추가 주차공간이 있나요?

○ 사업부서

- 거기는 추가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는 가재울근린공원이어서 지금 현재도 다 녹지공간으로 공원 공간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별도는 없어요. 저희가 법정주차대수를 한 대지만 초과해서 그래도 최대한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 ○○○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법정주차대수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 건데 특히나 지금 보면 약간 문화 쪽, 결국 아이들도 많이 오게끔 해주시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접근성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실은 300m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요. 특히 애들 데리고 오려면. 그러면 결국 주차공간이 좀 넉넉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서 혹시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주차 쪽을 설계 당시에 조금 더 반영해 줄 수 있지 않나.

○ 사업부서

-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타당성 조사할 때도 또 얘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을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최대한 반영한 부분이어서 조정

의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 ○○○ 위원

-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사업부서

- 아니요. 그 건물의 형태나 부지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렇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적정부터 한번 여쭙보도록 할게요. 일단 적정이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로 손 들어주십시오.

6분이 일단 적정으로 의견을 주셔서 사실 조건부나 재검토나 부적정 의견을 여쭙 봐야 되는데 일단 과반수가 넘어서 적정 의견으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끝내도록 하고요.

14. (지방재정영향평가) 2024 서울콘(SEOULCon)

(소관부서 설명)

○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응답을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와 같이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해서 의견을 최종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작년에도 민간투자를 받으셨나요?

○ ○○○ 위원

- 작년에 안 받았어요.

○ ○○○ 위원

- 올해는 있을 것이라는 예정인가요?

○ ○○○ 위원

- 작년에는 안 받아서 이걸 100% 시비로 해야 되냐가 문제였는데

○ 위원장

- 지금 현재 본 건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라든가, 이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이렇게 보는 것이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은 자유롭게 질문을 주셔도 되는데 아까 여태까지 14건 정도 심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포인트보다는 전반적인 그냥 재정자립도, 운영도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받으신 자료 10페이지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서울권 관련된 자체평가가 100점 만점의 평가 결과가 85점으로 나와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좀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배점으로 봤을 때 지금 볼 때 재정여건 분석에서 평가부분, 그다음에 재원조달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분점수 받은 것만 간략하게 보시고 여기서 안전이 신속하게 결정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다 읽은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표결하시는 건가요?

○ 간사

- 네, 지금 결정하시면 됩니다.

○ ○○○ 위원

- 한 가지 궁금한 게 가장 큰 차이점이 결국에는 비즈니스 매칭인 것 같거든요. 이걸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비즈니스 매칭의 기업은 우리 기업청에 있는 기관인 건가요? 이 매칭을 2회차에는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 ○○○ 위원

- 이 부분이 사실은 의지의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25억만 하면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작년에 어떤 성공적인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민간에서도 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본 게 있고.

또 뒤에 6페이지 개최 결과에서 보면 이게 주관부서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분명히 경제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올
해는 민간에서도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목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업부서가 유치를 한 데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 위원장

- 거의 지금 질문들은 충분히 주신 것 같아서 그냥 본 안전에 대해서 걱정
성 여부 의견을 지금 취합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
서 본 사업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걱정 주시고, 만약에 추가적으
로 뭔가 의견이 있으시면 조건부 추진 하셔도 되고요.

사실 재검토나 부적정 같은 경우에는 본 사안에 있어 일단 1차적으로
100점 만점에 85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서 굳이 그렇게 재검토
까지 있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일단 걱정 여부 먼저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일단 걱정이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로 손 들어주십시오.

지금 6분이셔서 이미 지금 과반수는 넘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혹시 조건부 추진이 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해서는 걱정으로 하고요. 추가적인 의견들은 나중에
추후에 또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전은 걱정으로 평
가하겠습니다.

15. (보고) 최근 3년간('21 ~ '23) 투자심사 실시사업 사후평가 결과

○ 소관부서

- 최근 3년간 투자심사 실시사업 사후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투자심사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투자사업들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기
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있고, 시의회에서도 투자심사 사후평가 결과를 투
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후평가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1년에서 '23년까지 심사한 총 490건에 대해 평가하였고,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적정, 조건부 추진 사업 총 427건 중 396건 92.7%의 사업이 예산 편성 후 적정 집행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 반영이 양호하였습니다. 다만 31건 7.3%의 사업은 예산이 미반영되었는데 사업 중단, 재원 미확보 등의 사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 이행 현황입니다. 조건부 추진 사업 총 343건 중 303건 88.3%의 사업이 투자심사 조건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에 있어 조건 이행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40건 11.6%의 사업은 조건을 미이행하였는데 사업 중단,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 오늘 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전달을 드릴 텐데요, 2024년 제3차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 안건 13건에 대해서는 걱정이 3건, 조건부 추진이 3건, 그리고 2단계 심사가 3건이 있습니다. 재검토가 3건이고, 부적정이 1건으로 취합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안건도 있었죠. 그래서 이 건은 적정히 1건으로 최종 취합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2024년 제3차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17시 17분, 폐회】